



numbers
vol. 245

목회자의 선교적 교회 인식과 실태
선교적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코로나 이후 확연한 성장세!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탈북민이 알려주는 북한의 실상
- ② 한국의 지역별 이주민 실태

2024. 6. 25.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선교적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코로나 이후 확연한 성장세!

2000년대 초반 선교적 교회가 처음 한국에 소개됐을 때만 해도 용어의 모호함과 기존 선교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어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에 접어들어 한국교회의 위기가 감지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선교적 교회란 20세 후반부터 시작된 교회 운동의 한 개념으로 교회의 사명은 성도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고, 교회 공동체는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적 교회와 관련한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담임 목사의 절반 정도(52%)가 시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교적 사역의 주체인 평신도 중심의 선교 사역은 20% 정도만 이뤄지고 있었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의 장애 요소로 '사역 방법을 몰라서'와 '성도의 선교 의지 부족'이 높아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일단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성도들이 자발적 선교 사역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 교회보다 코로나 이후 확연히 성장세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 조사 (담임목사 대상)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문자를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방법	전국의 교회 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추출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5월 12일 ~ 5월 31일(20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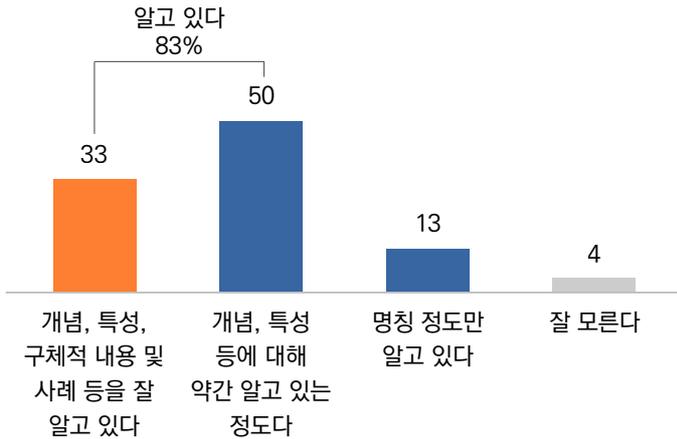
01

[선교적 교회 이해]

'선교적 교회 개념 잘 알고 있다' 담임목사 3명 중 1명에 불과

-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살펴보았다.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선교적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은 결과, '개념, 특성, 구체적 내용 및 사례 등을 잘 알고 있다' 33%, '개념, 특성 등에 대해 약간 알고 있는 정도다' 50%, '명칭 정도만 알고 있다' 13%, '잘 모른다' 4%로 나타났다. 담임목사 3명 중 1명만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약간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치면 83%로 담임목사 대부분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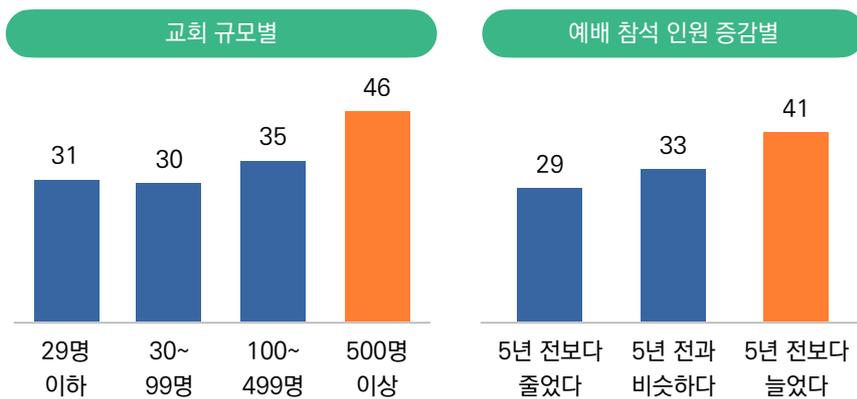
[그림] 선교적 교회 이해 정도 (담임목사, %)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의 선교적 교회 이해도 높아!

- '선교적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교회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선교적 교회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예배 참석 인원이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교회 특성별 '선교적 교회 잘 알고 있다' 비율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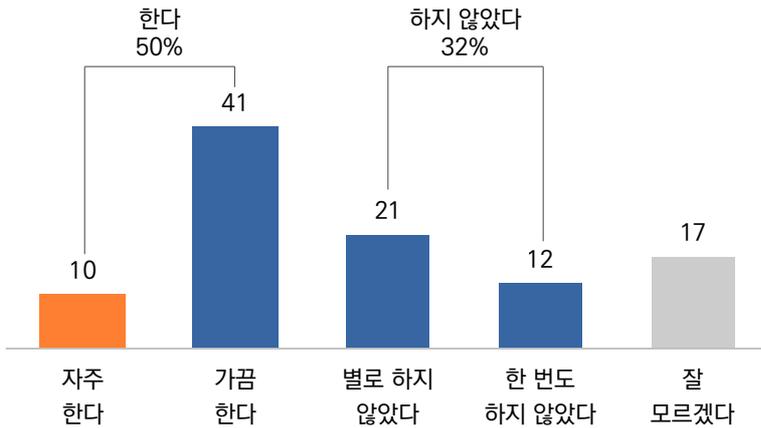
02

[선교적 교회의 목회 적용]

선교적 교회에 대해 자주 강조하는 목회자, 10%에 불과

- 이번에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나 강의,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자주+가끔)한다’ 50%, ‘(별로+한 번도)하지 않았다’ 32%로 목회자의 절반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 강의, 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주 한다’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그림]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강의/훈련 진행 여부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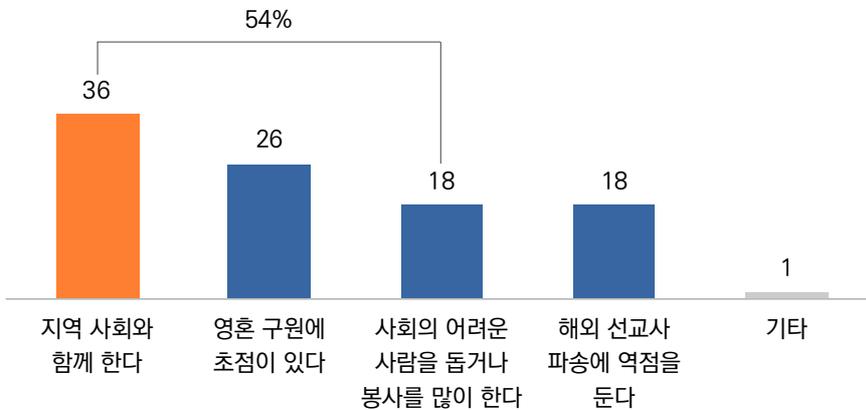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한국의 선교적 교회 특징, ‘지역 사회와 함께!’

- 한국교회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앞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 ‘(매우+약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특징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한다’가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 26%, ‘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와 ‘해외 선교사 파송에 역점을 둔다’가 각각 18% 순이었다.
- 목회자들은 선교적 교회의 특징으로 영혼 구원이나 해외 선교사 파송보다는 봉사·구제 등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사역(54%)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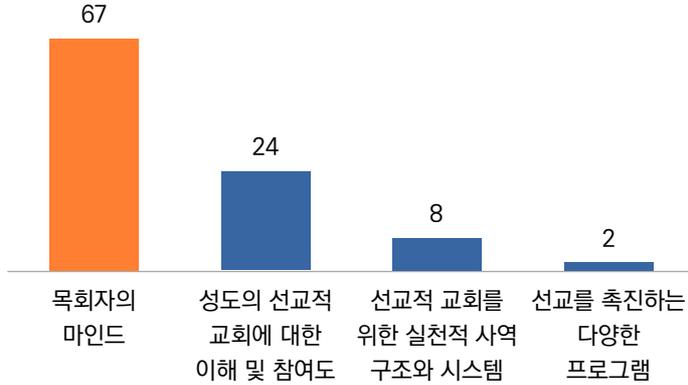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의 특징 (선교적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담임목사, %)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동력, '목회자의 마인드' 압도적으로 높아!

-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의 마인드(67%)'가 압도적으로 높게 꼽혔고, 이어 '성도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24%, '선교적 교회를 위한 실천적 사역 구조와 시스템' 8% 등의 순이었다. 성도의 이해와 참여도,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구조나 시스템도 중요하나 목회자들은 목회자 자신이 앞장서야 선교적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동력 (선교적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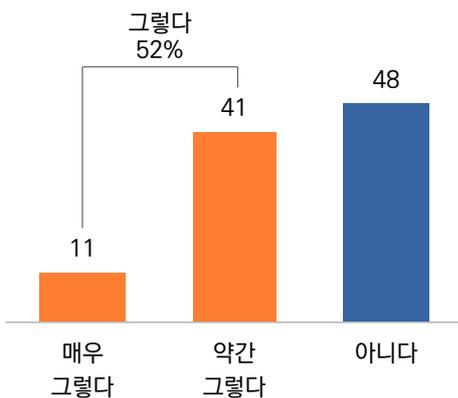


03

[선교적 교회 실태와 인식] 담임목사 절반 정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

-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인식하고 있을까?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은 결과, 담임목사 절반 가량(52%)은 자신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확신('매우 그렇다' 비율)한 목회자는 11%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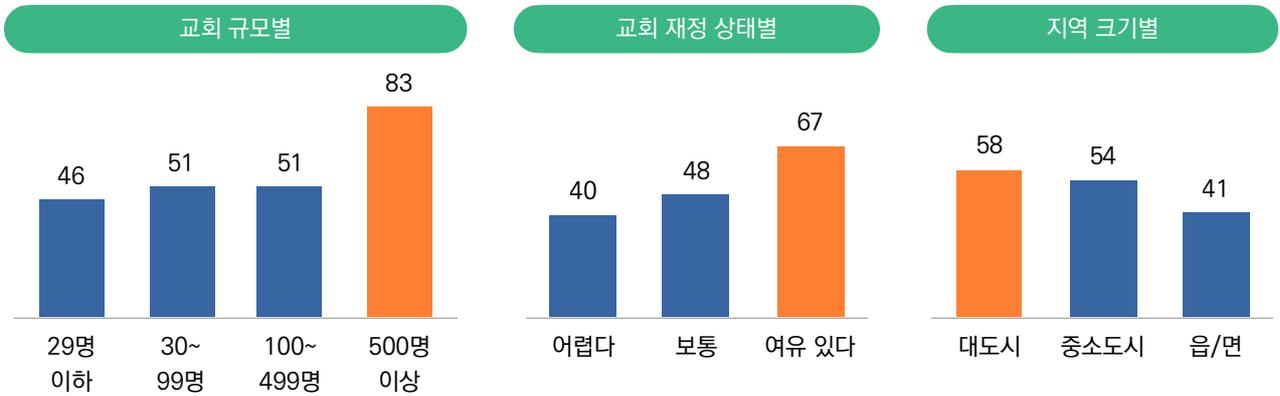
[그림] 시무 교회의 선교적 교회 여부 (담임목사, %)



선교적 교회의 특징, 재정 여유가 있는 대도시의 대형교회!

- 시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하는 비율을 교회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회 규모별로는 '500명 이상'의 대형교회에서 크게 높았고, 교회 재정 상태가 '여유 있고', '대도시' 교회일수록 선교적 교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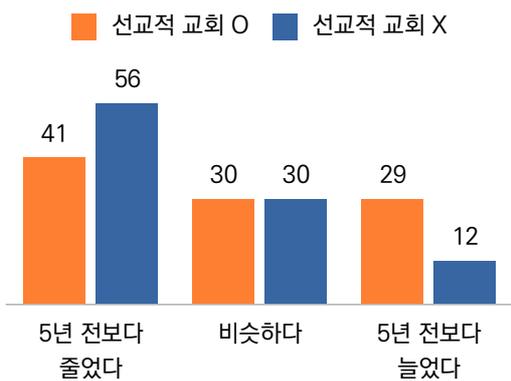
[그림 교회 특성별 '선교적 교회 인식' 비율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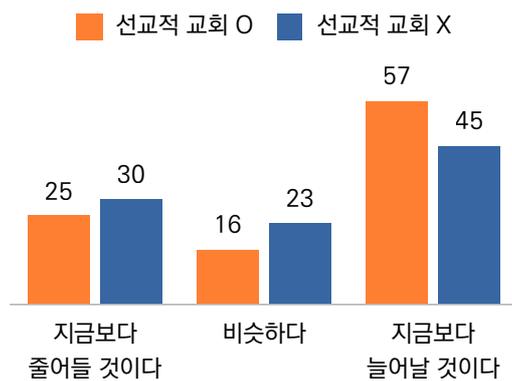
선교적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코로나 이후 확연한 성장세!

- 선교적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5년 전 예배 참석자 수 변화와 향후 5년 뒤 예배 참석자 수 변화 예측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선교적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대비 '5년 전보다 현재 교인 수가 늘었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고, 5년 후 전망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 이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교회 성장 측면에서 강한 동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년 전 대비 예배 참석자 수 변화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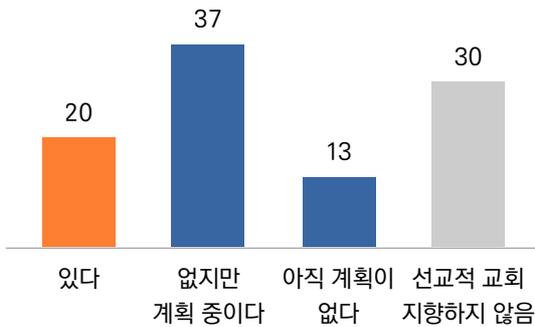
[그림 5년 후 예배 참석자 수 변화 예상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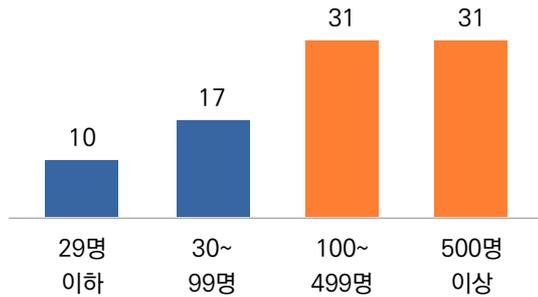
5교회 중 1곳, '평신도 중심 선교 사역' 한다!

-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성도의 선교적인 삶이다. 교회에 평신도 중심의 선교 공동체는 어느 정도 있을까? 평신도 중심의 선교적 공동체의 존재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5개 교회 중 1개 교회 정도로 나타났다. 앞에서 선교적 교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52%였지만, 실제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선교적 공동체가 존재하는 비율은 20%로 크게 적었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중대형 교회에서 31%로 나타나 전체 평균(20%)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평신도 중심 선교적 공동체 보유 여부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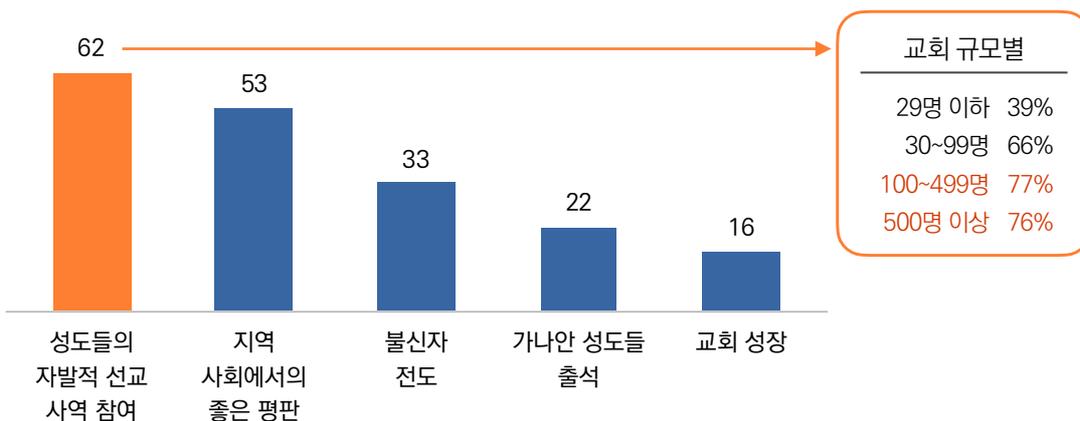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평신도 중심 선교적 공동체 '있다' 비율 (담임목사, %)



선교적 교회의 열매, '전도/평판'보다 '성도의 자발적 선교 사역 참여'!

- 자신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하는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선교적 교회로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자발적 선교 사역 참여'가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좋은 평판' 53%, '불신자 전도' 33%, '가나안 성도들 출석' 22% 등의 순으로 선교적 교회를 함으로써 전도 효과나 주변의 좋은 평판이라는 열매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중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의 자발적 선교 사역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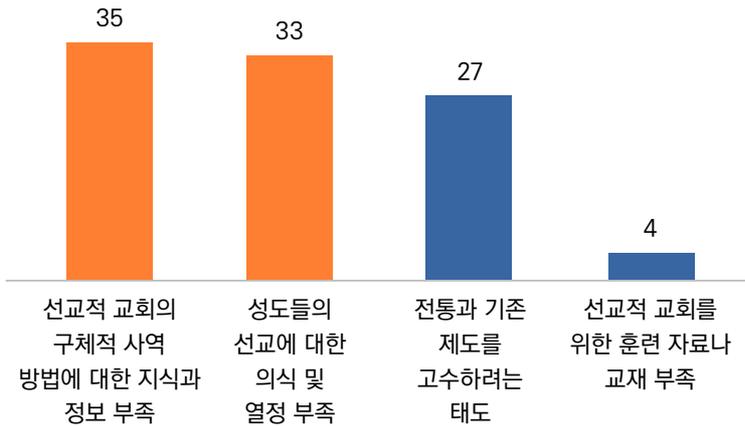
[그림] 선교적 교회로서의 열매 (시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하는 담임목사, 중복응답, 상위 5위, %)



선교적 교회의 장애 요소, ‘사역 방법 몰라서’, ‘성도의 의지 부족’!

-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 사역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35%)’과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의식 및 열정 부족(3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전통과 기존 제도를 고수하려는 태도(27%)’, ‘선교적 교회를 위한 훈련 자료나 교재 부족(4%)’ 등의 순이었다.
- 목회자 대상으로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모델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선교적 교회를 위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고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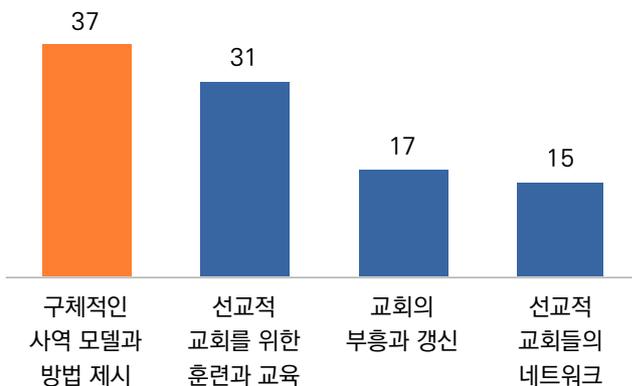
[그림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의 장애 요소
(시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하는 담임목사, 상위 4위, %)]



선교적 교회 확대 위해 ‘구체적인 사역 모델/방법 제시’ 필요해!

- 이번에는 선교적 교회에 많은 교회가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물은 결과, ‘구체적인 사역 모델과 방법 제시’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선교적 교회를 위한 훈련과 교육(31%)’이었다. 앞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가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 사역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이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 사례와 방법 제시, 훈련/교육을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한 가장 큰 필요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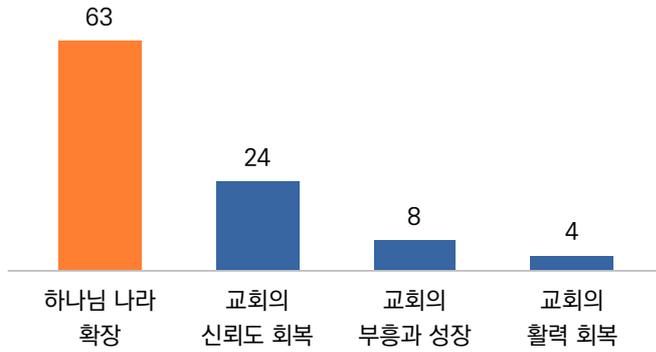
[그림 선교적 교회에 많은 교회가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시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하는 담임목사, 상위 4위, %)]



선교적 교회에서 기대하는 결과물, ‘하나님 나라 확장’ 압도적!

- 시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하는 담임목사들에게 선교적 교회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회의 신뢰도 회복’ 24%, ‘교회의 부흥과 성장’ 8%, ‘교회의 활력 회복’ 4% 등의 순이었다.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 수단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본질적 측면이 주된 기대치였다.

[그림] 선교적 교회에서 기대하는 결과
(시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인식하는 담임목사, %)



이번호 요약

1. 10개 교회 중 1곳 정도만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유!

-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 내용, 사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3%, '약간 알고 있다' 50%로 나타났다.
- 시무 교회의 선교적 교회 여부에 대해 52%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했고, 그중 '매우 그렇다'는 11%에 불과했다.

2. 선교적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코로나 이후 확연한 성장세!

- 5년 전 대비 교인 수 변화, 5년 뒤 교인 수 변화 전망을 선교적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선교적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확연하게 성장세가 높았다.

3. 선교적 교회 확대 위해 성공 사례, 구체적인 방법론 전파 시급!

- 선교적 교회의 열매는 '전도/평판'보다 '성도의 자발적 선교 참여'라고 응답해 사명의 주체가 성도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의 장애요인과 확대에 필요한 조건 모두 '구체적 사역모델, 방법론 제시'가 높게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미셔널 처치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X 한국교회 트렌드 2024\)](#)
- ▶ [\[기사\] “교회의 본질은 선교…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 돼야” \(아이굿뉴스\)](#)
- ▶ [\[서적\] 잊혀진 교회의 길 \(엘런 허쉬, 아르카\)](#)

관련 성경 구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

목회 적용점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확실히 성장세에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연구소가 한국교회에 제시하는 기본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소그룹에 집중할 수 있고, 다음세대에 집중할 수 있고, 선교적 교회에 집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어느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교회의 집중 사역으로 선택한다면, 이번 넘버즈에서 제시한 대로 성도의 자발적 선교 참여까지 가야 한다. 선교적 교회를 향한 성도의 공감과 동의, 그리고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공 사례에 대해 연구해야 하고, 해당 교회에 적합한 구체적 사역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인 교육을 통해 내면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인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역 공동체를 마련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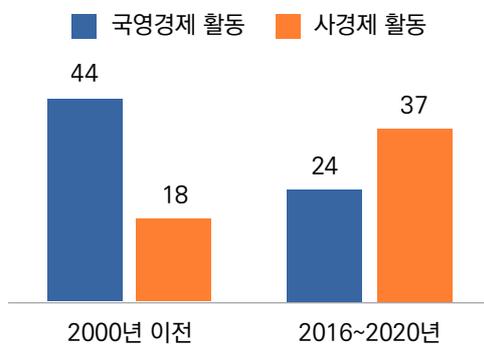
이런 과정을 통해 가정, 일터, 지역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늘어나고 이들의 삶이 변화된다면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열매라 할 것이다.



[탈북민이 알려주는 북한의 실상] 국영경제 비중 줄고, 비공식 경제활동인 ‘사경제’ 활동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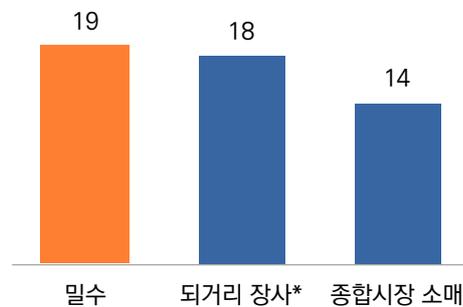
-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통일부)’가 최근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는데, 탈북민들이 북한에 거주했을 당시를 생각하며 과거에 지냈던 생각과 태도를 회고적으로 응답한 결과로써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한다.
- 북한 경제활동 종사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 이전에는 공식 경제 활동인 ‘국영경제 활동’의 비중이 44%로 비공식 경제 활동인 ‘사경제 활동(18%)’ 보다 크게 높았으나, 2016년 이후는 사경제 활동 종사자(37%)가 국영경제 활동 종사자(24%)를 넘어섰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배급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생존을 위해 공식적으로 금지된 사경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사경제 활동으로는 ‘밀수’, ‘되거리 장사*’, ‘종합시장 소매’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변화 (북한이탈주민, %)



[그림] 사경제 활동 유형

(2016~2020년 북한이탈주민,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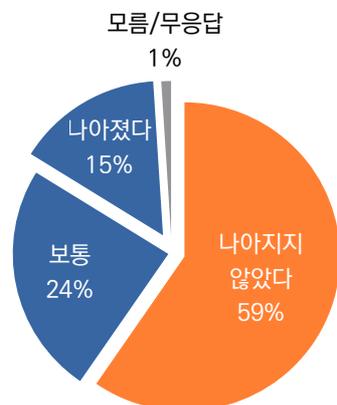
※출처 : 통일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02.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351명, 면접조사, 2013~2022)

*물건을 사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넘겨 파는 장사

북한 사회, 김정은 집권 후 빈부격차 더 벌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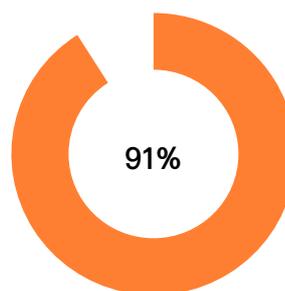
-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한 시기(2011.12.)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당시의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나아지지 않았다(59%)’는 응답이 10명 중 6명꼴로, ‘나아졌다(15%)’는 응답보다 4배나 높았다.
- 한편 ‘북한의 빈부격차 인식’에 대해서는 ‘빈부격차가 심화했다’는 의견이 대다수(91%)였고, ‘간부층 중 부자가 많아졌다’는 인식이 73%였다.

[그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201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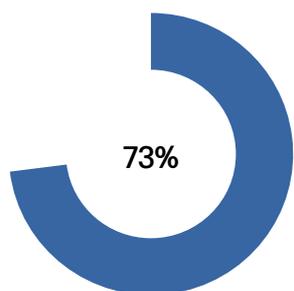


[그림] 북한의 빈부격차 인식 (북한이탈주민,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빈부격차가 심화했다



간부층 중 부자가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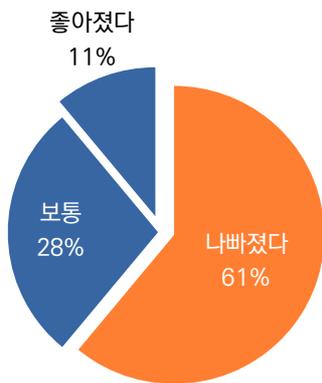
※출처 : 통일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02.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351명, 면접조사, 2013~2022)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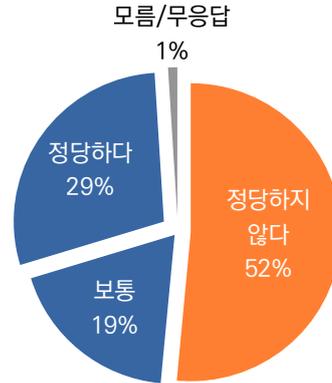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 훨씬 많아!

-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김정은 집권 후 민심 변화’를 묻은 결과, 북한이탈 주민 10명 중 6명이 ‘나빠졌다’고 평가했고, ‘좋아졌다’고 평가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 김정은 권력 승계를 평가하는 질문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2%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그림] 김정은 집권 후 민심 변화*
(201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그림] 김정은 권력 승계 평가*
(201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출처 : 통일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02.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351명, 면접조사, 2013~2022)
*5점 척도

‘북한에서 비밀 종교 활동 본 적 있어’, 4.8%!

- 이번에는 북한의 종교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발간된 ‘북한 종교자유 백서(2020,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살펴보았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을 두기도 하지만, 실제 허용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0.4%로 사실상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에게 ‘종교 활동 경험’에 관해 묻은 결과, ‘비밀 종교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2%, ‘비밀 종교 활동을 목격’한 경우는 4.8%로 조사됐다.
- 국가에서 종교를 허용한다는 인식이 0.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종교 활동을 실제 한 사람이 1.2%, 목격 비율 4.8%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스럽게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종교 활동 허용 여부 (북한이탈주민)



[그림] 종교 활동 경험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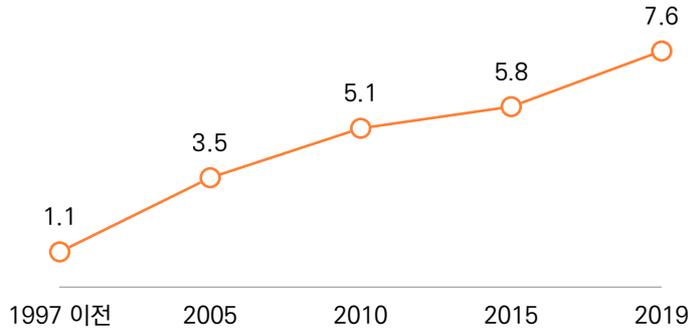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 2020.10.31. (탈북민 14,832명, 면접 및 문헌 조사, 2007~2020)

북한에서 성경 본 경험, 해마다 증가 추세!

- 북한 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물었다. 그 결과, 1997년 이전에는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1%에 불과했으나, 2005년 3.5%에서 2010년 5.1%, 2019년은 7.6%로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폐쇄 사회이지만 해가 갈수록 북한 사회 깊숙이 성경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림] 성경 본 경험 (북한이탈주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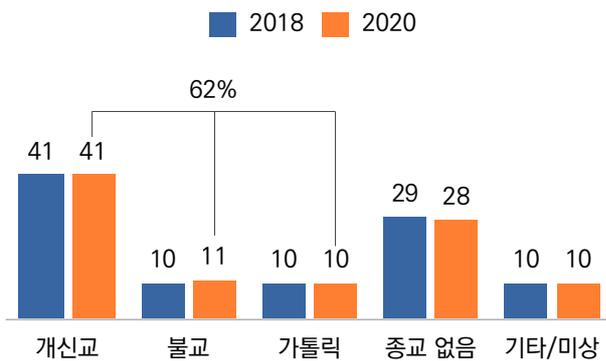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 2020.10.31. (북한이탈주민 14,832명, 면접 및 문헌 조사, 2007~2020)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기독교가 41%로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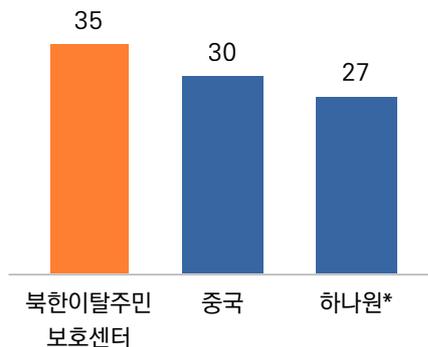
- 2024년 3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4,121명(통일부)이다. 이들 가운데 종교를 가진 비율은 3대 종교(개신교, 불교, 가톨릭)만 봤을 때 2020년 62%로 일반 국민의 종교 믿는 비율(2017년 : 46%, 2023년 : 37%)보다 훨씬 높았다.
- 북한이탈주민의 종교는 2020년 기준 '개신교' 41%, '불교' 11%, '가톨릭' 10% 등의 순으로 개신교가 타종교보다 크게 높았으며, 2018년 동일 조사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 북한이탈주민 중 개신교인이 많은 이유는 탈북 초기 한국 선교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과, 한국 정착 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선교 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북한이탈주민, %)



[그림] 종교 활동 시작 시기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종교활동자, 상위 3위, %)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 2020.10.31. (북한이탈주민 14,832명, 면접 및 문헌 조사, 2007~2020)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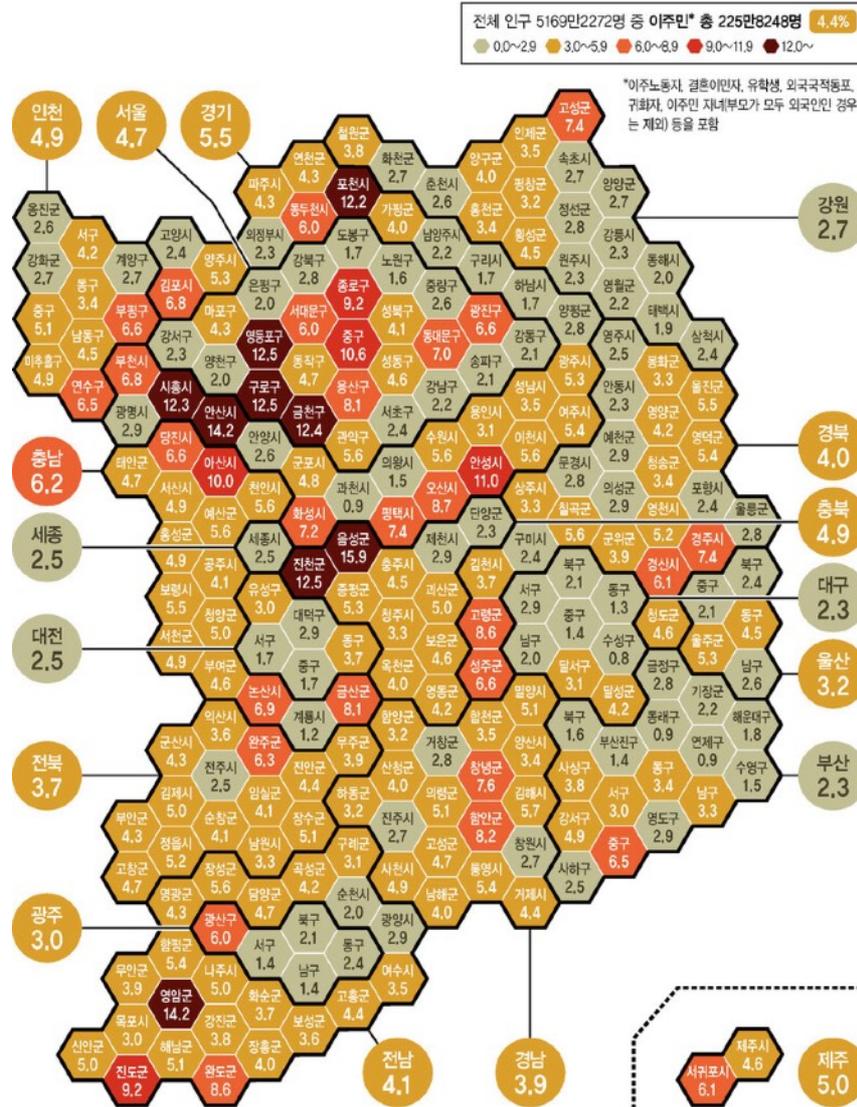


[한국의 지역별 이주민 실태]

한국 내 이주민, 전체 인구 중 4.4%!

- 한국 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이주민 자녀 등을 포함한 '이주민'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약 226만 명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4%에 해당한다. 시군구별 이주민 비율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2022년 기준 이주민 비율 1위는 '충북 음성'으로 15.9%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 안산', '전남 영암', '충북 진천', '서울 영등포' 순이었다.

[그림] 시군구별 이주민 비율 (2022년 말 기준, %)



[표] 이주민 비율 (상위 5위)

1	충북 음성(15.9%)
2	경기 안산(14.2%)
3	전남 영암(14.2%)
4	충북 진천(12.5%)
5	서울 영등포(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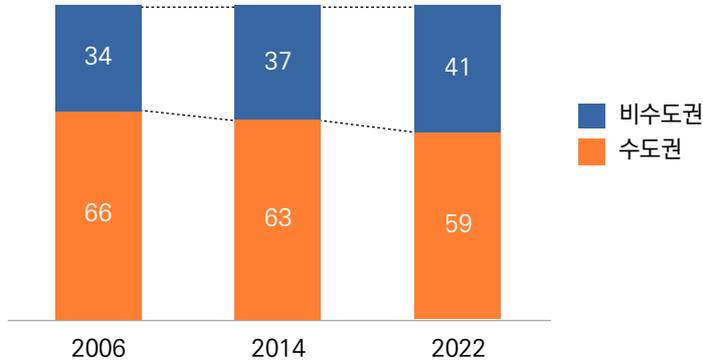
※출처 : 한겨레, 이주민 16년 새 4배...인구 빠져나간 지방에 '새로운 이웃'으로, 2024.06.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073.html)

※원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인구의 수도권 쏠림으로, 이주민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점점 이동!

- 이주민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2006년 66%에서 2014년 63%, 2022년 59%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인구의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하는 사이, 이주민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파고들어 지방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이주민의 수도권 거주 비율 (%)



※출처 : 한겨레, 이주민 16년 새 4배...인구 빠져나간 지방에 '새로운 이웃'으로, 2024.06.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073.html)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7호 \(2024년 6월 3주\)](#)

-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 경제 전망

사회 일반

[국민 10명 중 6명 "세월호 이후 '안전한 사회'로 변화 없어"](#)

연합뉴스_2024.6.21.

[작년 서울 찾은 외국인관광객, 평균 6일 머물며 284만원 썼다](#)

연합뉴스_2024.6.17.

[OECD 출산율 반토막 날 때 한국은 8분의 1토막 났다](#)

한겨레_2024.6.23.

["지방인데 초등학생이 늘었네"…순유입 '이곳' 이유 알고보니](#)

매일경제_2024.6.23.

[경기침체로 신규 경매 신청 11년 만에 최대](#)

동아일보_2024.6.22.

["남들은 비싼집 잘만 사는데, 비참하다"…수도권 거주자 10명중 9명, 주거 불만족](#)

매일경제_2024.6.16.

[포털-유튜브 이용자 절반 "가치편향 유발"](#)

동아일보_2024.6.21.

[의료조력사 찬성 70% 달하지만… 연명 치료 중단 문턱은 높아](#)

한국일보_2024.6.25.

청소년 · 청년

['수학 포기' 고등학생 6명 중 1명… 국어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대](#)

국민일보_2024.6.18.

["그냥 쉬는" 청년 40만, 또 증가 전환…역대 두번째로 많아](#)

연합뉴스_2024.6.23.

경제 · 기업

[육아휴직 쓴 아빠 70%… 눈치 덜 보는 대기업맨](#)

국민일보_2024.6.24.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 고려 중"](#)

연합뉴스_2024.6.19.

[피해자가 숨는 사회…"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1명만 신고"](#)

연합뉴스_2024.6.2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진화하는 '디지털 땡땡이' 비법...메신저 조작, 가짜 화면 보호기까지](#)

조선일보_2024.6.21.

[MZ 직장인 절반 “현재 직무 만족하지 않아”](#)

동아일보_2024.6.21.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도저히 안돼”...기업 파산 역대 최대](#)

매일경제_2024.6.23.

국제 · 환경

["집 사기 어렵고 가족 부양 힘들어"...美 20대도 고통](#)

연합뉴스_2024.6.24.

[사우디 성지순례 참사의 민낯...기후변화도 약자부터 때린다](#)

연합뉴스_2024.6.23.

[올해 폭염·폭우 얼마나 심할지...여름이면 커지는 '기후 불안'](#)

연합뉴스_2024.6.23.

[“매일 전세계 어린이 2천명이 대기 오염에 죽어간다”](#)

한겨레_2024.6.19.

건강

[당뇨병, 저소득층은 더 버겁다...“우울증 발병 위험 증가”](#)

동아일보_2024.2.6.

[커피,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직장인에 ‘생명수’](#)

동아일보_2024.6.18.

기독교 · 종교

[늘어나는 노인 학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민일보_2024.6.23.

[삶의 의미 고민 많은 한국인, 기독인 10명 중 3명은 점 본다는데...](#)

국민일보_2024.6.19.

기획기사 : [워라밸 현장을 가다], 국민일보

[“가족친화적 기업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한 근로시간”](#) _2024.6.17.

[5명 중 1명 주 35시간 이하 근무... 전일제 정규직과 임금은 같아](#) _2024.6.19.

[워라밸 걱정마' 달라지는 기업들... 자율 출퇴근에 주 1회 재택](#) _2024.6.21.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